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5 <끝>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



이 중훈
편안학교사

강원도의 동서를 잇는 대관령을 신앙의 중심공간으로

강릉단오제는 한반도 태백산맥 동쪽지역인 강릉에서 행해지는 마을단위의 공동체축제다.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기 위하여 산신과 남녀성황신 등을 섬기는 종교적 제의로서의 성격과, 농작을 비롯한 각종 민속놀이와 마임 중심의 관노가면극을 공연하는 전통 민속놀이를 바탕으로 한 민속놀이로써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 되는 독자적 예술성을 지닌 채 전승되어 왔다. 고대 부족국가인 동예의 무천이라는 제천의식에 뿌리를 두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천년의 세월을 두고 원형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강릉 단오제에서 행해지는 관노가면극은 지역 수호신을 인격화한 한국의 유일한 무인극으로 한국 전통 가면극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강원도의 통과 서를 잇는 길목이자, 서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통과 서로 대관령을 신앙의 중심공간으로 하고 있다. 대관령의 산신각과 국사성황사를 비롯하여, 강릉시 구산성황당, 학산성황당, 국사여성황당, 국사 여성황 생가, 그리고 강릉

시내를 관통하는 남대천 단오장등 민속신앙의 공간에서 펼쳐진다. 단오제는 음력 4월 5일 신주(神酒)빚기로 시작된다. 이 날을 전후로 강릉시민들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단오제 헌미(쌀바치기)에 참여한다. 모아진 쌀로 각종 차례에 쓰일 술과 떡을 만들고, 단오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나누어준다. 4월 보름이면 대관령에 올라가 산신제를 지내고 국사성황신을 모셔오는 행사가 벌어진다. 기록에 의하면 성황신을 모셔러 가는 행차는 아주 장관이었다고 한다. 나팔과 태평소, 북, 장고를 든 음악패들이 무악을 울리는 가운데 관리, 노비, 무당패들 수십 명이 말을 타고 가고, 그 뒤에는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제물을 진 채 대관령 고개를 걸어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은 대관령 길을 차를 타고 올라가 옛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관령을 내려온 일행은 강릉의 여성성황사로 간다. 성황과 여성황 두 명의 위패와 신목을 모셔 놓고는 유교식으로 제사를 올리고, 이어서 무당패가 부정굿, 서낭굿을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단오제가 시작되는 5월 3일까지 위패와 신목은 여성황사에 모셔둔다. 음력 5월 3일 저녁에는 제관과 무당들이 영신제를 지

낸다. 그리고는 국사성황신의 위패와 신목을 남대천에 가설된 제단(굿당)으로 모시는 행차가 벌어진다. 위패와 신목을 모셔놓은 뒤 무녀들이 환영의 춤을 추는 것으로 영신행차는 끝이 난다. 음력 5월 4일부터 7일까지 단오제가 계속 이어진다. 단오제 중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단오 굿으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계속된다. 단오 굿은 영동지역 주민의 안녕과 삶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무속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을 차례로 모시는 의례이다. 굿의 내용을 보면 먼저 굿당의 부정을 쫓는 부정굿으로 시작하여 대관령 성황굿, 천뢰굿, 화해동참굿, 조상굿, 세존굿, 산신굿, 성주굿, 칠성굿, 군용 장수굿, 심청굿, 천왕굿, 손님굿, 제면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으로 이어진다. 굿에 사용했던 나무, 종이, 등 종류를 모두 불에 태우는 소제로서 단오제의 모든 행사는 막을 내린다. 강릉 단오제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민속놀이로는 관노가면극이 있다. 이 가면극은 과거 관청의 노비들에 의해 행해졌던 무인극으로 등 장인들은 양반과 각시, 두 명의 시시떡이와 두 명의 장자떡이로 구성되고, 10여 명의 악사들이 반주를



단오제 가면극

말고 있다. 강릉단오제가 열리는 단오날은 설날, 추석과 함께 한국의 3대 명절의 하나였다. 단오명절에는 다양한 놀이가 행해지는데 대표적인 놀이가 그네뛰기와 씨름이다. 씨름은 남성들의 놀이이고, 그네는 여성들의 놀이이다. 강릉단오제 기간 동안에 이러한 전통 놀이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강릉단오제는 지역 축제로서 1000년 이상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오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2005년 11월 25일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의해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다.

셰익스피어 에세이

정의에 의한 복수



박정규
대진대학교
영문학과교수

요즘 극장가에는 광주항쟁을 소재로 한 '화려한 외출'이라는 영화가 많은 관심 속에서 상영되고 있다. 1980년에 일어난 민족사적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계엄군에 의한 양민학살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오랜 독재정체에 신물이 난 국민들의 민주화의 열망이 쿠데타에 의해서 좌절되었던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또한 과거사 진상위원회는 그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발표명령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끔찍한 살

때문이다. 광주항쟁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군인들이 자행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다. 맥베스는 외국과의 전쟁에서 훌륭한 전공을 세운 용감한 장군이었던 덩컨왕이 왕자 딸을 후계자로 발표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권력에 마녀들에게 전해 들었던 왕이 되리라는 예언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부인과 함께 음모를 꾸민다. 그는 격려자 자신의 성에 들른 덩컨 왕을 자신의 칼로 찌르고 반역에 성공한다. 한번 저지른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낳게 되어 오랜 친구인 벵코를 비롯해서 무고한 맥더프 부인과 아들을 잔인하게 죽인다. 이러한 살인에 대해서 셰익스피어는 두 가지 복수의 형태를 보여준다. 하나는 맥베스나 맥베스 부인이 겪는 암살에 의한 죄의식에 의한 내적인 파멸이고, 또 하나는 맥더프에 의한 외적인 보복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자발적인 죄의식을 느낀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공중을 달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마들에 의해 자신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두려워한다. 그는 왕을 시해하고 난 후에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듯 괴롭고 아프다"고 호소한다. 이런 고통은 맥베스 부인 또한 피할 수 없으며, 그녀는 "모든 일이 헛수고다, 허망할 뿐이다. 뜻이 이루어져도 만족을 얻을 수 없겠는가. 살인을 하고 개립칙한 기쁨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해당하는 쪽이 더 낫겠다"라고 토로한다. 결국 맥베스는 자신이 죽인 유령의 환영을 보고 발작을 일으키는가 하면, 맥베스 부인은 불면과 공유병을 앓다가 자살을 하고 만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엄청난 심적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시적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 맥베스의 살인 행위에 대한 외적인 심판은 그의 칼에 목숨을 잃은 맥더프 부인과 아들에 대한 분노에 의한 보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맥더프는 맥베스의 만행을 피해 있다가 말콤왕자와 더불어 정권회복을 위한 전쟁을 벌인다. 그는 반격에 소극적인 말콤을 부추겨서 맥베스의 숨을 조이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다. 인간의 자궁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마녀의 예언을 굳게 믿는 맥베스에게 자신이 제왕절개해서 태어난 자라고 밝혀 그의 마력의 효과를 제거해버린다. 결국 맥베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의 직접적 보복을 행함으로써 또 하나의 시적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인행위가 있었고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간 사회가 가져야할 시적 정의이다. 우리나라의 고대소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주제가 '권선징악(선은 장려하고 악은 징계함)'인 것은 이 도덕적 가르침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최대공약수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역사적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시민이 고백하였듯이 영화를 보고서야 시민들의 희생이 진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감정에 의한 왜곡된 인식은 그 사건이 단지 불법적으로 일어난 난동으로 해석을 하던 매체의해서 조작되었기

교육에세이 46

방학(放學)을 자기 발전의 시간으로 활용하자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각급 학교별로 이미 여름 방학이 들어갔으므로 방학이 시작된 이후 벌써 2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도 익히 알고 있듯이, 방학은 하절기 더위로 인한 여름 방학과 동절기 추위로 인한 겨울 방학이 있지요. 즉, 폭염(暴炎)과 혹한(酷寒)으로 인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수-학습에 어려움이 수반됨으로써 수업이 효율적이지 않은 관계로 일정 기간 동안 학교 수업을 가정 학습으로 대체하는 것일 뿐입니다. 분명 한 것은, 방학은 학교생활이나 학습의 중단이 아니라 '학습의 장(場)'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잠시 옮겨진 것에 불과하며, 휴업(休業)이 아닌 자기 발전을 위한 재충전의 시기로서 건강한 여가 생활과 협동심 배양, 자기 계발을 위한 각종 여름 캠프의 참가, 역사 유적지 탐방이나 과학 실험을 통한 과학적 사고(思考) 능력과 창의성 신장, 또 대지연의 품안에서의 호연지기(浩然之氣) 함양, 인격 도야에 필수적인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 그 밖에도 체험학습을 통해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험거운 삶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것도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될 것

이며, 무엇보다도 취미와 소질의 개발 등 평생시 정규수업으로 인해 미루어 두었던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여름 방학의 설계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방학을 맞을 때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번 방학중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정작 개학일이 되면 방학 전에 생각했던 계획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결국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누가 더 성실하게, 더 많이, 지속적으로 노력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다 나은 삶(人生)을 위해 각자 자신의 할 일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방학중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 방학중에 의미 있는 일을 잘 계획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계획하고 뜻을 세우려면 맘을 정리해야 합니다. 주자(朱

희)가 말하기를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日)과 달(月)은 흐르니 세월은 나를 위해서 더디 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본 란을 통해 이미 강조한 바 있듯이,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歲月不待人) 따라서 방학 기간을 가버려 버리지 말고 하루 하루를 성실하게 보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쉬지 말고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 천리 길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사뭇물이 모이지 않으면 큰 강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작은 일이 하나하나 쌓여 큰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방학중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언정 과감히 거부하고 방학중 생활계획을 실천하는 의지력으로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써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또 뜻하는 바를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빌 게이츠(William H. Gates)가 미문헌 휘트니(Mr. Whitney)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들려 준 충고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은 학기로 구분되어 있지 않

며, 방학도 없고, 부활절 휴가 같은 것도 없으며, 회사는 당신이 매일 출근해 8시간 동안 일하기를 기대한다. 학교처럼 몇 주가 지나면 한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출발 같은 것 없이 그저 계속될 뿐이다. 위에 소개한 빌 게이츠의 말은 학생 여러분의 학창시절, 학교생활이 얼마나 많은 애정과 배려가 함께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충언의 말씀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 더 귀한 말씀으로,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는 것이니, 어려서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 수확할 겨를이 없을 것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날 할 일을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공자의 삼계도(三戒圖)를 음미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봄(청소년기)에 씨를 뿌리지 아니 하면 가을(老年)에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임을 명심하고, 힘차게 생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대들보 자동차 공업사



- 삼성화재 지정 정비센터
- 차량정비 · 예약점검
- 일반수리
- 오일교환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467
☎ 031) 542-6527
대표 : 백옥현

